

News

‘저축은행→지방은행 전환’ 등 은행 과점 완화 카드 다 꺼냈다

서울경제

2일 은행권 제도개선TF 실무작업반 1차 회의서 신규 은행 추가 인가·비은행권 경쟁촉진안 검토
은행 자산 건전성 악화·리스크 전이 가능성 등 “경쟁 촉진” 평가 속 TF 내부서 우려 목소리도

더 강화된 예대금리차 공시..."기존 신규액에 잔액 기준도 추가"

이코노미스트

예대금리차 공시 제도 실효성 '의문 부호'
오는 7월부터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도 공시..."은행 경쟁 촉진"

기준금리 동결에도 대출금리 '들썩'

한국경제

3일 기준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혼합형 금리(은행채 5년 만기 기준), 연 4.41~6.522%로 집계
한 달 전인 2월 3일(연 4.13~6.64%)보다 최저금리가 0.28%포인트 상승

‘돈 잔치’ 5대 금융지주, 사외이사 30명 물갈이 예고

조선비즈

KB·우리·하나금융그룹은 3월 말 임기가 종료되는 사외이사 절반 이상을 새 후보로, 신한금융그룹은 사외이사 규모 축소
신한 10명, 하나 8명, KB 6명, 우리 4명, NH 2명이 임기 종료 대상자

생보사 보유 현금 10조원대 복귀...금융불안에 안정화 '충력'

데일리안

생명보험사들이 확보한 현금 자산이 한 달 새 4조원 가까이 불어나면서 두달째 10조원대를 웃돌고 있음
갑작스러운 금리 상승에 채권 매도 등으로 대응하며 공간 채우기에 충력을 기울이는 모습

DGB생명·흥국생명, K-ICS 경과조치 신청

뉴스토마토

DGB생명과 흥국생명도 올해 새로 도입된 지급여력제도(K-ICS) 적용 유예를 신청
재무건전성 지표가 악화된 상황에서 새 규제를 적용하면 건전성 지표가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

절세 누리세요...증권사들, ISA 채권매매 개시

뉴시스

주식·펀드 등에만 적용되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절세 혜택이 채권으로까지 확대
올해 법 개정에 따라 증권사들이 속속 ISA 채권 매매 서비스를 개시

주금공, 한국투자증권 원주 PF사업비 90% 보증

동아일보

최근 한국투자증권은 강원 원주시의 1000억 원대 PF사업 자금 조달에 성공
살얼음판 PF시장에 구원투수 역할, 업계 숨통 터주지만 리스크 지적도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